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1호 [무제 제23113호] 주제99 (2010)년 6월 10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시켜온 불멸의 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업적 여러 나라에서 기념행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와 델리주체사상연구회에서는 강연회와 델리주체사상연구회에서는 강연회가 1일과 2일에 진행되었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위엔 굽따는 강연에 앞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연구위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 김정일령도자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의지를 밝히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봉사신 그이께서는 당안에 주체사상만이 짝 들어차게 하시었으며 모든 문제를 오로지 당의 창건자이신 주체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풀어나가시며 당건설과 활동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 부러 지난 46년간은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다져진 날이었다.

일심단결은 김정일각하의 혁명철학이다.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일심단결의 원리적기초가 전면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어떤 력량과 요인에 의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며 무엇을 추동력으로 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완벽하게 밝혀지

까지 받는 조선녀성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녀성들이다. 평양시내의 곳곳에 보이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없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일주체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평양산원에서 온갖 해택을 다 누리며 국가의 부담으로 전문치료

조선의 일심단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 김정일령도자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완벽하게 밝혀지

게 되었으며 수뇌부를 핵으로, 수령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랑과 믿음으로 온 사회를 동지애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김정일각하의 변함없는 정치적지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정치, 광복정치로 전체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었다.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라하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련합체와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향적목표를 열어나올수 있는 비결은 바로 조선에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기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경제와 의학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강성대국으로 비약할수 있는 정치사상적기초와 군사적담보를 더욱 확고히 마련한 조선이 가까운 몇해안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강성대국의 완전한 면

모를 갖추게 되리라는것을 국제사회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글라데시신문 《나론 방글라》 5월 31일부는 《조선로동당의 진두에서 46년》, 《인민을 위하여》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담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총대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의 세시대를 펼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김정일주체에서 개척하신 선군의 길로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나날에 온당과 군대의 강화발전이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령도 밑에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되고 조선인민군은 필승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김일성주체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각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만드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지난 46년간은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총대의 위력으로 선군혁명의 세시대를 펼친 력사,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을 펼친 력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영원한 승리를 담보해온 력사이다.

이제 이 기업소뿐이라. 그 어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그 어느 직장이나 작업반에 가보아도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붙수 있고 우리 인민의 강한 일욕심, 불굴의 정신력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 사회주의경쟁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떨리던지 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이 높아가는 속도이자 우리 조국의 대고조기상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이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경쟁심은 열렬한 애국의 열풍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따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경도자께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경이적인 현실속에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비상이 강화되었다.

인민의 신뢰를 받는 당 불레쥬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메히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에서 불레쥬 제41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쥬는 《인민의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에서 불레쥬 제41호를 발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대중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대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등 인민들의 숙원으로 남아있던 제반 민주개혁들을 수행하고 인민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일시에 사회주의가 붐피며 조선이 사회주의기치를 드림없이 고수한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책임감을 보여준 좋은 실례라고 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 비결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온데 있다. 김일성주체에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고 시종일관 그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여왔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패한다는 김일성주체의 좌우명이 로동당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본분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이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미나당》이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판철을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부러깊은 나무가 모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반석같은 대중적지반을 가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이 이 세상 그 어떤 정치단체보다도 끄떡없이 버틸수 있는 자명한 리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대고조기업을 위한 비약이 뛰놀고 있다

대고조기투쟁의 새 소식

최첨발전설장소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울 한 마음이고 최첨2호발전소 인제공사를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대무군 정창복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전속도》 창조자들의 본태를 힘있게 과시하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부대에서는 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인제공사공기트리치의 50% 계선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인제공사를 올해안으로 전부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빛나는 성과는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열매로서 전체 발전건설자들뿐 아니라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근인정신은 혁명적신념과 의지에서 우리 나옵니다.》

올해 정초 친히 건설장을 도사리 찾으신고 안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부대의 지휘관들이 인제공사공기트리치를 계획보다 앞당겨 해체될 대담한 목표를 내세

공공시설과 공동주조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서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을 가리키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과 공동사상, 공동주조에 공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

언제 콩크리트치기에서 최고기록 돌파

최첨발전설장소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쁘드린 공지를 안고 언제기중기를 증설하고 타임장소를 늘이면서 량적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최근 두달동안에 종전보다 매일 평균 수천mm의 콩크리트치를 더 진행함으로써 장마기간에도 안전하게 공사를 내밀수 있게 언제높이 기록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첨2호발전소 인제에는 선군건설의 기상인양 날이 그 모습을 일신하면서 하늘높이 솟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류기쁨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이제 이 기업소뿐이라. 그 어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그 어느 직장이나 작업반에 가보아도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붙수 있고 우리 인민의 강한 일욕심, 불굴의 정신력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 사회주의경쟁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떨리던지 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이 높아가는 속도이자 우리 조국의 대고조기상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이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경쟁심은 열렬한 애국의 열풍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따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애국의 경쟁 바람

최첨발전설장소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쁘드린 공지를 안고 언제기중기를 증설하고 타임장소를 늘이면서 량적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최근 두달동안에 종전보다 매일 평균 수천mm의 콩크리트치를 더 진행함으로써 장마기간에도 안전하게 공사를 내밀수 있게 언제높이 기록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첨2호발전소 인제에는 선군건설의 기상인양 날이 그 모습을 일신하면서 하늘높이 솟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류기쁨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이제 이 기업소뿐이라. 그 어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그 어느 직장이나 작업반에 가보아도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붙수 있고 우리 인민의 강한 일욕심, 불굴의 정신력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 사회주의경쟁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떨리던지 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이 높아가는 속도이자 우리 조국의 대고조기상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이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경쟁심은 열렬한 애국의 열풍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따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상반년 계획 빛나게 수행

최첨발전설장소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쁘드린 공지를 안고 언제기중기를 증설하고 타임장소를 늘이면서 량적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최근 두달동안에 종전보다 매일 평균 수천mm의 콩크리트치를 더 진행함으로써 장마기간에도 안전하게 공사를 내밀수 있게 언제높이 기록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첨2호발전소 인제에는 선군건설의 기상인양 날이 그 모습을 일신하면서 하늘높이 솟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류기쁨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이제 이 기업소뿐이라. 그 어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그 어느 직장이나 작업반에 가보아도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붙수 있고 우리 인민의 강한 일욕심, 불굴의 정신력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 사회주의경쟁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떨리던지 경쟁도표의 붉은 줄들이 높아가는 속도이자 우리 조국의 대고조기상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이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경쟁심은 열렬한 애국의 열풍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따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대!》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야 합니다.》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력량을 집중함경남도에서

최첨발전설장소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쁘드린 공지를 안고 언제기중기를 증설하고 타임장소를 늘이면서 량적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최근 두달동안에 종전보다 매일 평균 수천mm의 콩크리트치를 더 진행함으로써 장마기간에도 안전하게 공사를 내밀수 있게 언제높이 기록을 창조하였다.

부대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첨2호발전소 인제에는 선군건설의 기상인양 날이 그 모습을 일신하면서 하늘높이 솟아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류기쁨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이제 이 기업소뿐이라. 그 어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그 어느 직장이나 작업반에 가보아도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붙수 있고 우리 인민의 강한 일욕심, 불굴의 정신력을 엿볼수 있다.

정론

승리자들

10월의 대축전장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 3월5일청년광산 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을 전하며

조국의 북방에서 또 하나의 경사가 있다.

시간을 주름잡으며 폭풍처럼 달려오는 선군조선의 푸르른 하늘가에 3월5일청년광산 로동계급이 승리의 평마루에 남면저 올라 터치는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기에 오니 정신이 번쩍 드요, 일을 많이 하였고, 대단해, 대단해, 애국자요, 애국자! 라고 하시며 거들 높여 평가해주신 때로부터 불과 2년만에 여기 3월5일청년광산에서는 또다시 다계단비약의 통장훈을 부르므로써 광산의 면모를 다시 한번 일신시켰다.

축복을 받으시라, 북방의 영웅들이여

우리 나라에 회한한 《미남자선광장》이 태어났다.

갑자기 평원에서 솟구치기라도 한듯 한해에 수백만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선광장이 자강도의 외진 땅속에 불쑥 일떠섰다.

산악에 여러개의 정각과 댐이 있고 뿜는 물은 산으로와 어울려 계단식으로 일떠선 이 멋들어진 선광장의 걸만 보아서는 아담한 식료품장인지, 경치 좋은 휴양소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현대적인 파세기와 마방기, 부건기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서 경쟁적으로 동음을 울리는 선광장은 안락으로 일색이다.

벨트콘베어를 타고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드는 광석이 잠간사이로 정광과 미광으로 갈라져나가는 광경은 장쾌하기 그지없다.

광산의 정광생산량은 종전보다 두배로 늘어났다. 지난 시기에 기록하였던 최고생산년도의 실적에 비하여서는 근 3배로 뛰어올랐다.

자립경제의 위용을 과시하는 비석사와 석탄기화로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우리의 철과 비로, 우리의 섬유와 내화물, 우리의 마감건재와 식료품이 광광 쏟아져나오는 시대에 채취공업부문에라도 현대화의 본보기, 비약의 본보기가 마련되는 사면이 터졌으니 이 얼마나 호찬한 정조인가.

누구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선 격정과 환희로 가슴들먹이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척의 첫 자욱을 찍으신 때로부터, 우리 수령님 무궁이 불수 없는 내 조국의 돌덩이 하나를 손에 드시고 바로 우리가 선 이 자리를 파보라고, 그러면 무엇이 꼭 나올것이라고 하시며 비범한 선전적명의로 광맥을 찾아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46년의 세월이 흘렀다.

절세인물들의 숭고한 애국의 넋이 깃든 뜻깊은 땅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마친내 빛나게 관철한 광부들이 격정에 겨워 오열하는 모습을 눈물없이 볼수 없다. 소연으로만 간직되어있던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리상의 진당도위에 절명의 붉은 화살표가 가슴후련하게 그려진 력사적인 시각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이 땅우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나게 꽃피웠으며 나라의 한끝 압록강변에 남부러울것 없는 21세기 광부도시, 사회주의웃음꽃 만발하는 강성대국지상락원을 남면저 펼쳐놓은 최후의 승리자들!

백철불굴의 땅 자강도가 낳은 이 영웅적로동계급의 투쟁모습에서 우리는 계속혁명의 포성드높이 리상을 실현해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창조적 강자들의 불패의 기상을 보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쉼 없이 우리 조국의 찬란한 메일을 그려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채취공업부문을

에서 표본이 나왔다고 하신 이 광산은 능력확장이나 현대화라는 한두마디로 비약의 의미를 다 말할수 없다.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주춧돌을 훌륭히 선광장이 일떠선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5~6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하던 창조물이 단 2년만에 일떠선 사면의 의의는 참으로 크다.

승리의 언덕에는 강자들만이 오를수 있다.

마음먹은 일을 다해내고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것은 강자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철의 배심과 자기의 힘을 굳게 믿는 정신, 우리 당의 구상따라 행복이 실려온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총만된 강인한 인간들에게는 원대 한 목표는 있어도 점령 못할 고지는 없다.

3월5일청년광산의 로동계급이 어떤 실천의 투사들인가를 알려면 이들이 최근 2년사이에 소문없이 해놓은 일을 알아야 한다.

광산을 찾아오는 차량이 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광산의 천지개벽은 점으로, 쌍으로, 다방면으로 변이 나고있는 내 조국의 속도라고 할수 있다.

생산정상화의 궤도를 출기차게 달려서 생산능력확장공사를 하는 속에서도 천수백m의 압록강방수제를 8달만에 끝냈다는것은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비약의 불길속에 자체발전소가 기운차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로 되는 대용량발전소가 눈깜짝할 사이에 건설된 사실은 또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그때 우리를 일으켜세워주신분은 정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눈보라 길을 헤쳐오시어 이 자강땅에 강제정신의 불길을 지퍼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과 같이 승리자라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일시나마 낙담했던 마음을 신념의 불길로 활활 태워준 눈보라 강행군!

여기서 강자의 새로운 삶이 태어났다.

시련을 겪는 조국앞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있었다는 자책감, 고난의 시기의 그 뼈아픈 공백때문에 조국과 인민이 더 시련을 겪었고 우리 장군님의 어깨우에 더 크나큰 짐이 실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광부들이었다. 몇몇한 실적이 없이 장군님을 마음속으로만 그리며 산다는것은 의리없는 행동임을 증명하게 된후원 열혈의 인간들이 이때로부터 두주먹을 부르짖고 일어나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제생의 첫 걸음을 내딛던 이 곳 광부들의 신심과 용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비약을 위한 귀중한 몇 톨을 안겨주시었

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주셨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지게 한 사회주의신념의 승리자들이었다.

주저않았던 광산을 활성화시키고 두단계의 연속적인 비약으로 생산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온 이들이 오 늘은 세번째 비약으로 기적의 통장훈을 불렀다.

얼마나 장하고 미더운 로동계급인가. 얼마나 힘찬 대고조의 선구자들인가.

인간이 훌륭하면 창조물이 훌륭 한것이다. 그의 창조물을 보면 그의 사상과 신념을 알수 있으며 그의 리상과 실천력을 알수 있다.

우리는 여기 조국땅 한끝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본다.

말로써가 아니라 창조물로 자신들이 시대의 선구자이며 고난을 타 승한 강자라는것을, 2012년의 선구자이여 최후승리자들이라는것을 보여준 여기에 3월5일청년광산에서 일어난 사면의 의미가 있다.

편수비약, 천지개벽!

압록강변에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이 건진의 회성속에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로 상승하는 우리 조국,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열어가게 하는 우리 인민의 용감한 투쟁모습이 어려온다.

압록강변에 소리높이 울려 퍼지는 정복의 《산울림》, 승리의 《산울림》에서 우리는 궁지높은 시대의 목소리를 듣고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바라는 모든것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조선사람의 민족자강의 자존심이 어떤것인가를 세계가 보고있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빈말이 아니다! 강자는 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이 엄숙한 선언이 세계를 향하여 더 울려, 더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한 여기에 시간을 정취하고 세월을 앞 당긴 북방의 광부들의 커다란 공적 이 있다. 승리자들의 피더운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이 혁명정신의 메아리는 정광 몇몇몇한것을 생산한 것보다 더 고귀한 창조적 열매로 되어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천 대오앞에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기적의 이 땅은 그리움의 불덩이

인간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잊을수 없는 추억에 승리자들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있다.

얼마나 가슴아픈 날과 달이 여기 압록강변에 울려퍼졌다.

명숙에 무진장한 자원을 깔고있으면서도 광부들이 두주먹으로 광맥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쥐어뜯어 애향고 광부의 안해들이 밤상우에 산나물밖에 올려놓을것이 없어 저 고리고봉으로 눈물을 적던 때가 정 명 언덕였었다.

고난의 후파를 제일 많이 입은 시련의 땅이었다. 피눈물을 누구 보든다. 많이 흘리고 고생을 보다 많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땅 이었다.

고난이 서리고서린 고장에서 가슴에 불길처럼오는 원수에 대한 증오를 더칠길 없이 몸부림쳤던 광부 들이었다.

3월5일청년광산의 일군은 말 한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세워주신분은 정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눈보라 길을 헤쳐오시어 이 자강땅에 강제정신의 불길을 지퍼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과 같이 승리자라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일시나마 낙담했던 마음을 신념의 불길로 활활 태워준 눈보라 강행군!

여기서 강자의 새로운 삶이 태어났다.

시련을 겪는 조국앞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있었다는 자책감, 고난의 시기의 그 뼈아픈 공백때문에 조국과 인민이 더 시련을 겪었고 우리 장군님의 어깨우에 더 크나큰 짐이 실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광부들이었다. 몇몇한 실적이 없이 장군님을 마음속으로만 그리며 산다는것은 의리없는 행동임을 증명하게 된후원 열혈의 인간들이 이때로부터 두주먹을 부르짖고 일어나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제생의 첫 걸음을 내딛던 이 곳 광부들의 신심과 용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비약을 위한 귀중한 몇 톨을 안겨주시었

다. 여기에 한번 온다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곳 로동계급이 기다릴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열어가게 세워 왔습니더라고 정정게 말씀하 실 때 《장군님, 고맙습니다. ...》라고밖에 달리는 아뢰일수 없었던 광부들의 뜨거운 마음이며,

그처럼 끝끝내도 뚫고있었던분, 심장으로 그리고 또 그러은 우리 장군님을 계집도 가장 엄혹한 강 추위가 가슴을 부리는 1월에, 길도 눈덮이고 얼음진 험한 평길에, 일러도 실내가 아닌 로천광산에 오랜 시간 모셨으니 그 최승소리울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수 있었는가.

3월5일청년광산은 기초가 든든 하기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 쳐와도 《고난의 행군》을 다시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광산이 힘든 고비를 넘겼으니 능력확장만 하면 잘살수 있다고 하시며 위대한 전망을 밝혀주시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 장군님,

해빛처럼 따스한 은정으로 비약의 역센 나래 펼쳐주셨거나 사람들이, 그리움의 불덩이인 이 땅에 서 불가늠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에 대하여, 유쾌적한것을 이겨내는 정신력에 대하여 더 높이 마시라.

불타는 충정은 다시한번 기적의 불꽃을 터뜨렸다.

수확하는 공식이 아닌 기계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힘에는 공익도 한정도 없다.

정명 언덕에서 선광장기초공사 의 나날, 자기가 하루에 몇시간 자고 몇시간 일하는지 가능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내고피내어도 끝이 없이 밀려나오는 각광속에 콩크리트기둥 하나를 박기 위해 배수기까지 강랑을 파내야 하는 전투가 끝나야 간고하였으면 대 줄기가 쏟아져내리는 비를 맞는줄 도 모르고 폭잠을 자는 돌격대원 들이 다 있었는가. 총혈된 눈의 피물이 터지고 입술이 부르트 갈라져도 현장을 뜨는 사람이 없었다. 분노를 다투는 전투장에서 시간다. 날마다 새 기록이 세워졌 다. 겨울에만 해야 했던 방수제방 공사 역시 인간의 힘을 검증하는

어머 생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셨다.

광산이 변모되고 생산이 늘어날 수록 이곳 광부들은 마음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더해만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여러 단위들을 찾아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할 때마다 우린 어떤 장군님을 일러에 모실까 하는 생각이 잠 못 들던 광부들이었다.

그리움과 기다림은 한줄기에 핀 꽃이로써 하였건만 그리움이 북반 쪽으로수록 이곳 광부들은 기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강제고봉라도 500리, 철길도 없이 험한 평을 넘고넘어야 하는 외진 조국의 북단에 어찌 우리 장군님 모실수 있단 말인가. 아니 될 말, 철길은 소원...

블라고블라드 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뜨거워지면서 피더운 삶을 안아올리는 심장의 덩어리, 그리움, 그리움!

명념이 가셔라도 먼발치에서나마 우리 장군님 타신 차를 한번 보지만 하면 한생소원이 풀려졌다 는 그 그리움이 순결하고 소박한 충정의 세계.

3년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광산에 큰 민심을 안겨주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온 광산이 그리움의 소원을 풀었다는 이야기 무성히 들을수 없다.

《뜨거운 불덩이는 변함없이, 진함없이 투쟁의 불길로 고통했다. 종전에는 6년이 걸려서야 해놓 았던 일이 단 몇달만에 끝나는 전 례없는 사면이 바로 광산에서 이 때에 부른 두번째 비약의 통장훈 이었다.

그런데 어찌 알랴. 한생의 소원을 꿈같이 이루게 될줄을.

2년전 굶이굽이 평님이 광산을 찾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먼길 걸음을 내딛던 이 곳 광부들의 신심과 용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비약을 위한 귀중한 몇 톨을 안겨주시었

사생결단의 격전이였다. 명하 30~40℃를 기록하는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땅속으로 하나의 고 층진들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깊이에 들어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장같은 물속에서 압박을 한결한결 뜯어낸다는것을 상상해보라. 수십mm의 흙과 암반을 들어내고 진흙제방을 땅속에 묻어 야 하는 이런 거창한 공사를 완공 한 돌격대원들의 대부분이 광산에서 《뽕내기》, 《뽕병이리》라고 불 리우던 것 사회에 나온 중학교졸업 생들이었음을 사람들이여 아는가.

날 때부터 타고난 강자만 없으며 긴장한 육체를 가지고있다고 하여 누구나 강한 인간이 되는것이 아니다.

그리움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창조자들이 자라났다.

어제날 고난앞에 일신이나 맥을 놓았던 그 사람들이 《자강》이라고 불려졌던 《강자》가 된다고, 우리 자강도는 《강자도》라고 그처럼 멋있게 말하는 신념의 인간으로, 실적의 인간들로 자라났다.

기대받지나 하던 평범한 로동자들이 CNC화바람의 선구자가 되었 으며 하루 10시간으로 만족해 하던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들이 하루 25시간을 세웠다. 밤중이나 잠든 연약한 손으로 해마다 수백해 하던 대형화물자동차운전자들이 하 고 강해진다.

높은 실력이야말로 실천가의 재부이며 애국자로 살고 혁명가로 생을 빛내어라 하는 든든한 밑천 이다.

그가 일군다는 기술자이든 로동자이든 하나의 지향, 하나의 목표를 쫓기 위해 애집없이 바칠수 있는 전 생실력이 있어야 하고 집단의 창조 물에 자기의 자욱을 땀땀하게, 뚜렷하게 남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광산의 한쪽에서 일군들의 승산 있는 작전과 지휘밑에 선광장건설 의 백병전이 벌어지고있을 때 생산 공정에서는 정광실수율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리고 값비싼 시약들을 절약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이 쏟아져나오는 사실만으로도 애국의 선구 자, 시대의 강자들이란 어떤 사람 들인가를 알수 있다.

결사관철은 전선에서 심장의 피로 쓰는 실적이다.

그대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필요 하고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심장이 고동쳐야 하는가를 안다면, 그대의 심장이 매일을 강렬히 열망하고 필 승의 신념으로 불타고있다면 여기 자강도의 영웅광부들처럼 언제나 전선에서 삶과 행복을 찾으라.

강성대국시건료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생결단하고나선 저 희원의 돌격대, 우리 당의 항도의 자욱우에 기적의 꽃을 피워가는 동해와 서해, 북방의 혁신자들이 장군님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우리 당의 메일을 위하여 그렇게 무리 싸우고있다.

백두령장을 따라 선군의 준령 넘고넘으며 필승의 신념과 슬기로운 창조력을 배배친배로 다진 우리 인민은 희망의 고지들을 기어오르며 정복 할것이며 승리의 언덕에 보무당당히 올라설것이다.

위대한 땅을 위하여,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노동과 같이 떨쳐일어나 선군혁명의 천만대오가 시대와 력사앞에 어떤 빛나는 성공담을 쌓아올리려는가를 력사는 반드시 보게 될것이다.

리 동 찬, 한 경 철

도 정을 붙이지 못하는 법이다.

일에 정들고 사회주의에 정들고 창조와 위훈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북방의 로동계급이 얼마나 부러 운가.

지금껏 이룩한 기적의 덕으로 남부러지 않게 잘살수도 있다. 이미 마련해놓은 잠재력이 은을 내게만 하여도 그 가치는 대단하다.

기적의 《산울림》으로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고야말 창조열, 애국 열에 불타는 승리자들의 계속혁명의 투쟁정신을 본받자.

우리의 전선은 사회주의애국주의 전선이며 우리의 투쟁도 집단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다. 한사람같이 말하고 한가마뚀을 먹으며 행복의 새살림을 퍼도 하나와 같이 보매있게 힘을 모아보는 집단주의로 뭉친 힘을 떠나서는 생기를 활짝 열지 못할 이 곳 광산의 오늘을 생각할수 없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대오앞에 기발처럼 휘날리고 내가고성을 많이 하면 등자들이 그만쯤 쉬울것이라는 황심의 목소리가 투쟁과 생활에 공기처럼 흘러넘칠 때 상상할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집단의 힘은 실력전속에서 더 커지고 강해진다.

높은 실력이야말로 실천가의 재부이며 애국자로 살고 혁명가로 생을 빛내어라 하는 든든한 밑천 이다.

그가 일군다는 기술자이든 로동자이든 하나의 지향, 하나의 목표를 쫓기 위해 애집없이 바칠수 있는 전 생실력이 있어야 하고 집단의 창조 물에 자기의 자욱을 땀땀하게, 뚜렷하게 남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광산의 한쪽에서 일군들의 승산 있는 작전과 지휘밑에 선광장건설 의 백병전이 벌어지고있을 때 생산 공정에서는 정광실수율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리고 값비싼 시약들을 절약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이 쏟아져나오는 사실만으로도 애국의 선구 자, 시대의 강자들이란 어떤 사람 들인가를 알수 있다.

결사관철은 전선에서 심장의 피로 쓰는 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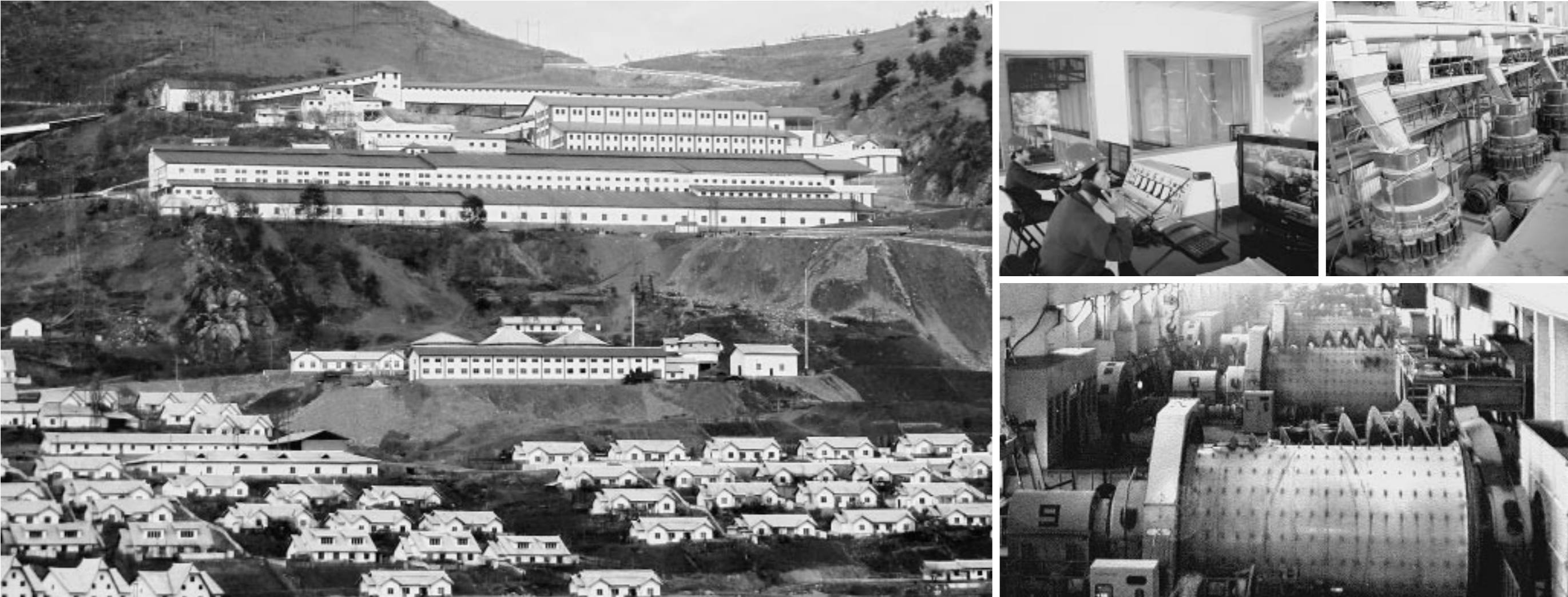
그대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필요 하고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심장이 고동쳐야 하는가를 안다면, 그대의 심장이 매일을 강렬히 열망하고 필 승의 신념으로 불타고있다면 여기 자강도의 영웅광부들처럼 언제나 전선에서 삶과 행복을 찾으라.

강성대국시건료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생결단하고나선 저 희원의 돌격대, 우리 당의 항도의 자욱우에 기적의 꽃을 피워가는 동해와 서해, 북방의 혁신자들이 장군님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우리 당의 메일을 위하여 그렇게 무리 싸우고있다.

백두령장을 따라 선군의 준령 넘고넘으며 필승의 신념과 슬기로운 창조력을 배배친배로 다진 우리 인민은 희망의 고지들을 기어오르며 정복 할것이며 승리의 언덕에 보무당당히 올라설것이다.

위대한 땅을 위하여,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노동과 같이 떨쳐일어나 선군혁명의 천만대오가 시대와 력사앞에 어떤 빛나는 성공담을 쌓아올리려는가를 력사는 반드시 보게 될것이다.

리 동 찬, 한 경 철



선 군 시 대 의 기 념 비 적 창 조 물 로 출 록 히 일 떠 선 3 월 5 일 청 년 광 산 선 광 장

본사기자 찍음

집단주의위력이 낳은 자랑찬 창조물-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

능력 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조선인민내무군인건설자들

은 나라에 타인지는 거세한 대고조의 불길속에 강성대국의 위창찬한 패일을 예고해주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는 가운데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졌다.

자를 대고 그은듯 규모있게 뻗어간 파수원들, 앞을 봐도 엽을 봐도 줄을 맞춰 늘어선 하얀 과일나무지대들, 드넓은 파수원을 제치른 료환선도로들과 물길...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군인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신념이 낳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며칠전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무군인건설자들이 사나운 추위를 이겨내며 몇개월이여 종전의 5배에 달하는 거창한 능력확장공사를 끝낸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구슬땀을 바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과일을 공급하는 데서뿐만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농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동강기슭에 대규모과수종합농장을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수십차례

의 가르침을 주시였으며 건설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지난해 11월 새로 건설된 이 종합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대단하게 능력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여 으뜸가는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로 꾸밀데 대한 위창찬한 설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펼쳐나갔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펼쳐나설 때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판철하여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십시오!》

시취부책임일군의 목소리는 모든 일군들의 심장을 땡땡 두드렸다.

내세운 목표는 참으로 방대하였다. 수백정보에 달하는 파수원의 토지정리, 수십km에 달하는 도로 및 물길건설, 연 4,000여리에 달하는 전조식구덩이파기, 수십만대의 과일나무지대세우기, 수백만근의 과일나무심기...

계다가 매년에 없이 사나운 추위가 려올 때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결사판철의 정신으로 주저없이 공사에 진입하였다.

확장공사의 선형공정인 토지정리는 600여만㎡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각 도인민보안군 건설자들은 집단적위력의 불길높이 화물자동차, 불도끼를 비롯한

툴기계들의 만가통을 보장하며 토지정리전투를 짧은 기간에 붙이 번쩍 나게 해제기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혁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었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군인건설자들이 하루일을 시작할 때마다 늘 찾곤 하는 전당에서 찾을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문득 찾아 오실것만 같은 생각에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판철하기 전에는 휴식할 권리가 없었다는 자각이 우리를 새로운 위훈창조로 데밀어주었습니다.》

광양도인민보안군 건설자의 경애하는 이야기, 그것이였다. 인민보안부의 전체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할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오르세 당의 정치보위자, 인민의 생명재산의 믿음직한 수호자인 내무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크나큰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리의 마음, 어떻게 하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신념과 자각은 전례없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연 수천리에 달하는 방대한 전조식구덩이를 팔 때였다. 매년에 없는 강추위로 땅결층은 바위처럼 명명 굳어져 도저히 일지러를 댈수 없었다. 하지만 내무군인건설자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과일나무구덩이파기전투에 진입하였다. 짙어진 정대에 대한 이야기

도 이때에 생겨났다. 남포시인민보안군 건설자들이 함파와 정대를 가지고 과일나무구덩이파기전투에 진입한것은 지난 2월이였다. 온종일 함파질을 해도 전조식구덩이파기는 몇m밖에 전척되지 않았다.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일에 천만고난이 두려우랴. 무조건 달려진 공사파제를 제때에 끝내자!

이런 불타는 열정을 안고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함파질》을 틀어대었다. 손은 온통 물집투성이다 못해 피가 거발출도 제대로 들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손에서 정대와 함파를 놓지 않았다. 정대가 무더러지면 다시 버리기를 몇번, 정대는 무더다 못해 째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아작은 어둠이 채 가서지 않았건만 어느 한 인민보안군의 건설자들은 작업장에서 달려나왔다. 전날 밤도록 구덩이파기와 거름분기를 진행한 파수원이였다. 높이 세운 하루전투파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고이 낮은 깊은 밤에 일떠보니 채 부스러뜨리지 못한 흙덩이들이 마을에 걸려서도 작업장으로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이였다.

사소한 흙도 없이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과일나무구덩이의 한 줄한줄의 흙에도 깃들여있다. 《단 한개의 작은 돌이라도 있어서 안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온 공사장에 울려 퍼진 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과일나무구덩이에 자기만한 돌이라도 섞일세라 한줌 한줌의 흙을 채로 쳐서 넣었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수만t의 거름을 과일나무구덩이들에 넣으면서도 돌이 섞일가봐 손으로 비벼가며 거름분기를 진행한 군인건설자들이였다. 어쩌 그뿐이랴. 구덩이에 고인 비물을 맑게 퍼내고서야 키낮은사과나무를 심었고 세찬 바람때문에 전날에 심어놓은 과일나무가 흔들려 사름들이 떨어질세라 원심을 써온 군인건설자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의 협력을 이어받은 사람이란 누구나 다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이 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쳐야 합니다.》

얼마전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파수농장건설은 집단주의를 생기로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수행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확장공사에서 군인건설자들이 창조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은 온 나라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달며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시였다.

인건설자들이 지새운 밤은 그 열매이며 등점으로 나온 흙과 거름은 또 열매였다.

많은 과일나무지대들이 울창하고 구덩이를 파서 세워야 하는 전투 역시 험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들은 공사파제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과일보관고와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자동화물선체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말린편공장을 돌아보고서 지적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 성과속에는 우리 식으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울 의지로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지혜와 힘을 합친 군인건설자들과 우리 과학자들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여있다. 열풍전조공정을 꾸리기

이런 건설자들이 지새운 밤은 그 열매이며 등점으로 나온 흙과 거름은 또 열매였다.

많은 과일나무지대들이 울창하고 구덩이를 파서 세워야 하는 전투 역시 험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들은 공사파제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과일보관고와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자동화물선체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말린편공장을 돌아보고서 지적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 성과속에는 우리 식으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울 의지로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지혜와 힘을 합친 군인건설자들과 우리 과학자들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여있다. 열풍전조공정을 꾸리기

이런 건설자들이 지새운 밤은 그 열매이며 등점으로 나온 흙과 거름은 또 열매였다.

많은 과일나무지대들이 울창하고 구덩이를 파서 세워야 하는 전투 역시 험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들은 공사파제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과일보관고와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자동화물선체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말린편공장을 돌아보고서 지적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 성과속에는 우리 식으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울 의지로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지혜와 힘을 합친 군인건설자들과 우리 과학자들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여있다. 열풍전조공정을 꾸리기

영웅적투쟁이로 위훈을 창조

본사기자 활연 옥



현대적으로 건설된 과일보관고 본사기자 찍음

자랑 많은 청춘과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원을 가꾸는 사업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그 어느때보다 손색이 없는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이다.

농장에는 튼튼한 과일나무 모생산지기가 있는데 이곳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한다. 여기서는 우량종들의 과일나무모들이 자라고있다.

모든 조건이 그뿐이 갖추어진 생산기지에서야는 해마다 많은 사과나무모를 생산하게 된다. 그 어떤 조건에도 구워워 없이 자체로 많은 과일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농장에서는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능공들을 양성하여 과일나무모생산을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게 하였다.

멀지 않아 완공될 현대적인 과수공장 또한 농장의 자랑이다. 새로 일떠서는 과수공장은 과일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밑천으로 되고있다.

고기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물기름은 과일나무모에 《보약》이 되어 해마다 풍만한 열매를 주렁지출것이다.

지금 과수공장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과일나무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실현해나가고 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당의 크나큰 은정을 노래하며 영원한 청춘과원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꿈에도 보고싶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보드사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우리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은 끝없는 경이로 설레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꼭 우리 농장에 오실것만 같아 꿈에도 그리며 과일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정성을 바쳐온 우리들이였다. 꽃피는 봄날이면 오실가, 과일향기 풍기는 가을이면 오실가. 이렇게 어버이장군님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불쑥 크나큰 행복이 찾아올줄 어이 알았랴.

지금도 귀 기울이면 끝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를 바라보며 최상급의 수준에서 건설된 이 농장이야말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최창찬한 풍경이라고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진 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몸소 우리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고 영광의 기원할까지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을 생각하면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농장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대규모과수농장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농장위치도 몸소 잡아주시고 그 건설방향과 방지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 주신 우리 장군님,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사장형에 대하여 로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일수 있겠는가 마음쓰시며 대책들도 세워 주신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속에 오늘과 같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날수 있었다.

하기에 우리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러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

을 기어이 꽃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난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가 하루빨리 은이 나도록 하기 위해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농장, 바로 여기에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특징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원건설과 관리에서도 주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금 있는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능률 높은 농기계를 많이 받아들이고 과수작업의 기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생산된 과일들을 한알도 허실없이 인민들에게 차치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많은 과일을 생산한 자랑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지배인 김창전

맛 좋은 과일가공품이 쏟아진다

사과 말린편공장을 찾아서

세척하여 껍질을 벗기고 속을 파낸 다음 일정한 크기로 썰어서 열풍건조실로 보내주고있다. 열풍건조실을 거쳐 수분이 제거된 사과속살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반제품이 진공포장을 통과하여 콘베어를 타고 실려가고있는 공정을 따라 완제품포장실에 이르렀다.

자동화장치를 통과하여 쏟아져내리는 사과말린편들이 봉지속에 들어가는속도 포장은 팽팽한 광경은 마치도 비단필이 출몰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현상화하였다.

순간 이 광경을 보시며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과일가공품을 받아안고 웃음꽃을 피우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반제품이 진공포장을 통과하여 콘베어를 타고 실려가고있는 공정을 따라 완제품포장실에 이르렀다.

자동화장치를 통과하여 쏟아져내리는 사과말린편들이 봉지속에 들어가는속도 포장은 팽팽한 광경은 마치도 비단필이 출몰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현상화하였다.

며 조종하는 치너조종공의 모습은 불쑥 대견스러웠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곳에 달려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식으로 최첨단기술을 통과하여 생산정상화를 보장한 이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에 있랴.

우리는 바깥 돌아본 생산공정들을 컴퓨터화면으로 다시 보았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수확한 갖가지 사과들이 맛좋은 말린편이 되어 지합들에 차곡 차곡 쌓이고 또 쌓이고있다. 불쑥 인민의 행복이 쌓이고 쌓인다는 생각에 흥분을 누를수 없었다. 정령 사과말린편공장은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을 대를 이어 깊이 전해갈 자랑찬 창조물이었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맛 좋은 과일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한 자랑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스럽게 들어서리라것을 확신하며 공장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서승호 사진 전성남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재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재부이다.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농장, 바로 여기에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특징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원건설과 관리에서도 주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금 있는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능률 높은 농기계를 많이 받아들이고 과수작업의 기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생산된 과일들을 한알도 허실없이 인민들에게 차치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많은 과일을 생산한 자랑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지배인 김창전

이런 건설자들이 지새운 밤은 그 열매이며 등점으로 나온 흙과 거름은 또 열매였다.

많은 과일나무지대들이 울창하고 구덩이를 파서 세워야 하는 전투 역시 험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들은 공사파제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이런 건설자들이 지새운 밤은 그 열매이며 등점으로 나온 흙과 거름은 또 열매였다.

많은 과일나무지대들이 울창하고 구덩이를 파서 세워야 하는 전투 역시 험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들은 공사파제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이런 건설자들이 지새운 밤은 그 열매이며 등점으로 나온 흙과 거름은 또 열매였다.

많은 과일나무지대들이 울창하고 구덩이를 파서 세워야 하는 전투 역시 험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군인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짧은 기간에 해제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드디어 이들은 공사파제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능력확장공사를 제기에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며 과일나무부배관리를 잘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일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충실성은 가장 뜨겁고 깨끗하며 가장 깊고 넓으며 가장 공고하고 영원한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꽃향기 가득한 중앙식물원의 김일성화원에서는 우리는 한 녀성과 마주앉았다.

나이가 예순을 가까이하였음을 말해주듯 잔주름잡힌 얼굴이며 희끗희끗한 머리칼, 마디 굵은 크지 않은 손.

바로 그가 불멸의 꽃 김일성과와 더불어 온 나라에 알려진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선군시대 공로자 리정희동무였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던 그가 온 나라, 온 세상이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피우는 태양의 꽃을 근 10만 상이나 재배번식하였다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화원과 함께 30여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다.

리정희동무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그의 심장속에 박들어차있는 열화와 같은 충정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보고싶은 어머니, 저는 오늘 중앙식물원 김일성화원사로 되였어요.》

저도 제가 원예사로, 더우기 어머니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을 연구하고 재배하는 연구사로 일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저에게 한 일군은 제가 대학 시절 미생물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김일성화원연구사업에 꼭 필요한 적임자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았어요. ...》

별들도 조은 깊은 밤 한자두자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리정희동무의 가슴속에는 추억의 물결이 조용히 파

태양의 꽃과 더불어 빛나는 값높은 삶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

도쳐왔다. 강원도 세포군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소녀시절을 보낸 평범한 가정의 딸을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불러주시고 나라의 어엿한 녀성과 학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주시는 어머니수령님과 어머니당의 사랑에 목이 딱 매여오고 눈앞이 흐려와 리정희동무는 쉽게 글줄을 이어갈수 없었다.

그날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리정희동무가 중앙식물원의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사회생활의 첫 발자국을 뒀던 날이었다.

편지의 글줄을 이어가던 그의 눈앞에는 낮에 있는 일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 리정희라고 합니다. 이곳에 연구사로 배치 받았습디다.》

도량포탕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연구사업에 몰입한 여러 연구사들이 일시에 머리를 들었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이며 청춘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신배연구사들로부터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갖는 숭고한 헌신의 생기와 활력이 엿보이는 밝은 얼굴, 그러면서도 이약하고 당돌하며 지혜와 열정이 흘러넘치는듯싶은 처녀연구사의 모습은 첫 인상부터가 믿음을 안겨주었다.

《반갑소.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저마다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에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못내 설레었다.

더 훌륭히 피어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기울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그의 가슴을 새겨쳐 올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 우리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히 재배번식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식물원에 김일성화원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온실과 해당한 연구실을 내오고 연구집단을 꾸려주셨으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자체를 보장해주도록 하시고 인종꽃모도 마련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연구집단의 한 성원이 된 리정희동무의 가슴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를 불멸의 꽃 김일성화원연구집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준 당의 사랑과 기대에 제가 과연 훌륭히 보답해낼수 있겠어요?》

정말 걱정이 클디다. 하지만 전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바로 이 길에 어머니수령님의 품에서 삶의 첫걸음을 떼고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대학에서 꿈을 자라는 청년직사인으로 시제가 인생의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펼쳐놓는 남편을 보며 리정희동무는 가슴이 뭉클 젖어 들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 자기 못지 않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안해를 위해 원심을 써오는 남편이었다. 김일성화원 지지도로 쌀 자재도 정성껏 마련해주고 안해의 연구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참고문헌도 짬짬이 발휘하여 안겨주곤 하는 남편의 성의는 언제나 리정희동무에게 힘과 고무로 되곤 하였다.

이런 나날속에 리정희동무는 자랄점에 의한 번식방법을 연구해나는데 이따금씩 비하여 재배기간이 짧고 로력도 자재도 훨씬 절약하는 조직배양생산 방법을 새롭게 연구해나는데 이따기하였던 어려운 문제로 나 사던 재배기계를 완전히 해결하여 김일성화의 재배방법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나날속에는 태양의 꽃재배에 제일 적합한 이끼를 찾기 위하여 머나먼 량강도의 산간지대에서 실험으로 꼬박 지새운 밤들도 있었으며 김일성화원연구사의 일이라던 그 무수 일도 다 도와야 한다며 뜨거운 지성을 바친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앞에서 감동된 눈물을 흘려내던 날들도 생겨져다. 태양의 꽃이 기울이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 열정으로 이어진 그런 날들,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수 없는 날들이었다.

《우리가 중앙식물원의 김일성화원실에서 일해오는지도 이제 퍼그나 오랜 세월이

년전부터 일해옵니다. 그는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박금순동무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김일성화원실에서 제기되는 김일성화원실 작업반장 리정희동무와 함께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 끝없는 열정을 쏟고 있는 연구사들이 하나, 둘 다른 연구기관으로 떠날 때에도 온실현장가로 남았습니다. 김일성화원실 연구사업에서 큰 공로를 세운 녀성과과학자 과학연구기관에 가면 더 큰일도 하고 명성도 떨칠수 있었는데 평범한 재배공들과 함께 현장가로 일한다는것이 우리로서는 잘 리해가 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그 후 반장동무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지향과 타없는 충실성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였습니다.》

흘렀군요. 그런데 난 아직 해는 일보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더 크군요.》

박금순동무는 뜨거운 눈물로 리정희동무를 바라보았다.

《어제 보나 해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온정앞에서 보답의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는 리정희동무였다.》

자기에게 어머니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였으며 공훈도시판리공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영광의 대화들에 자기를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으신 절세의 위인네들의 사랑과 믿음을 대하여 생각할수록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였다.

인생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는 원천이었다.

《어느 책엔데 어머니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한 사람은 많아요 그 꽃을 피운 원예사의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하는 일에 반말하는 김일성화의 밑거름이 된 우리 중앙식물원 원예사들의 수고를 얼마나 값높이 빛내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속에 우리는 김일성화원실로 삶을 빛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일성화원과 첫 인연을 맺은 우리 중앙식물원에서 생의 마지막순간

까지 일하며 온 세상에 김일성화를 더 아름답게 펼쳐놓고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정희동무의 한생의 목표이고 지향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진 맹세 바꿈없이 불멸의 꽃과 삶을 같이해온 녀성, 한발중에도 꽃이 격정되어 온실로 달려나가고 꽃이 시들세라 밤을 새우며 불멸의 꽃에 진정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사람이 바로 리정희동무이다.

우리와 헤어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화는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내고 우리 인민의 충정으로 만발하는 불멸의 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싶니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는 어머니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아름다운 충정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만발하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라고 믿습니다. 그 충정의 세계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지니자면 전 아직 너무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축복속에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받아안은 그의 인생길이 태양의 꽃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리라 믿음을 확신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지혜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리정희동무 (가운데)



중앙식물원 김일성화원실 연구사들이 어린이들에게 김일성화 재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안주시의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진로병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서 총대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초이다.》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안주시당원회 일군들은 영예군인들의 친부모가 되고 친혈육이 되며 그들의 생활을 근심하여 보살펴 주고있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 립장석동무는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편을 세심히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나감으로써 영예군인들이 안심과 평안에 넘쳐 혁명의 꽃을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있다.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보아도 영예군인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들가정의 크고작은 일을 헤아려 보살펴 주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뜨거

운 인정미는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이다.

안주시에서 집을 두고있는 영예군인 안인호동무가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였다. 시당위원회일군인 장병선동무는 따뜻한 고무의 편지와 함께 자기 집에서 마련한 보양제를 안인호동무에게 보내주었다.

그후 시당위원회에서는 안인호동무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기 위한 문제를 놓고 긴급회의 회가 열렸으며 여러가지 대책적인 안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안인호동무의 건강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치료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한편 그가 생활을 막연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문화기재들도 마련해주면서 지성을 다하였다.

각고 앓아오는 책임일군을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진정애로 안인호동무는 걱정을 금치 못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일군들은 영예군인에게 배려해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하면서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살도록 고무해주었다.

일군들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안인호동무의 건강은 날이 좋아졌으며 그의 생활에는 언제나 웃음과 노래가 넘쳐나게 되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스히 돌보아주는것을 선군시대 공민의 본분과 의무로 여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선군시대 일군답게 영예군인들의 친부모가 되고 혁명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고있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모범을 따라 안주시에서는 영예군인들을 적극 도와주는 미풍이 날로 꽃피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강동직매점 고비점 안성애동무

선군시대 공민된 순결한 양심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고있고있는 사람들

투쟁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벌려야 한다

오늘은 남조선인민들의 대적적인 6월인민항쟁 23돐이 되는 날이다. 세월을 흘렸어도 반미반파쇼의지를 과시한 그날의 투쟁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6월인민항쟁은 의세와 그 주구들의 독재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의로운 전진항쟁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월인민항쟁은 남조선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반미반파쇼투쟁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크게 뒤엎어버렸을 것이다.》

6월인민항쟁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괴뢰들의 군사파쇼독재를 반대하는 반미반파쇼항쟁이었다.

항쟁은 전투원격도가 인민들의 《개헌》요구를 뒷받침하고 파쇼(헌법)에 의한 군부독재연장을 위해 로데우역도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울것을 발단으로 하여 폭발하였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구 등을 포함한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쓴 항쟁에는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사무원, 도시주민, 종교인 등 수많은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미제축출》, 《민중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처에서 폭동학생결항의 무장을 해제하고 경찰지서와 파출소, 관공서, 《민정당》사무소 등을 습격 파괴하였다. 특히 독재정치를 비호조장하는 장본인이 미국이라고 단죄규탄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군사적간섭을 끝장낼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기발과 미국대통령허수아비에 대한 화형식을 단행하였다. 항쟁주체는 《갑보비상경제명》이 발동되고 무차별적인 탄압과 집단검거가 계속되는 살벌한 속에서도 곁합없이 싸웠다. 수

많은 시민들이 항쟁자들을 연도에서 성원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였으며 물과 음식물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격려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거머쥐어 안아오야말려는 굳센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인민대중의 강력한 항거정신앞에 더는 전설수 없게 된 군사파쇼당국은 《6. 29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직선제개헌》과 《구속자석방》 등을 약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광범한 인민들이 대적적으로 들고일어나 파쇼독재세력과 맞서 피흘려 싸운 결과였다.

6월인민항쟁은 정의의 위업실현을 위해 일떠선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침략자와 매국노들이 제아무리 총칼을 휘두르며 발악해도 단결된 인민의 힘을 결코 당해내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6월인민항쟁은 인민들이 자기들의 넘치는 충국력으로 실현하려던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끝까지 내밀어야 한다는 호소도 남겼다. 항쟁이 남조선인민들의 승리로 끝났지만 군부독재 통치는 결코 청산되지 않았으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항쟁자들의 넘치는 열정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미국은 아직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짓밟고 파쇼독재 통치를 비호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선군》페지리들도 의세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넘치는 거세어 짓밟고있다. 그로 말미암아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의세의 지배와 예속은 더욱 심화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착히 유린되고있으며 력복통일활동은 모조리 범죄시되어 탄압당하고있다. 남조선

은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 소고기를 끌어들이는 반역 《정권》을 반대하여 초콜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계적복세력》으로 물러 무더기로 쇠고랑을 차야 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 통성투쟁에 나섰던 주민들이 불에 타 죽는 등 자주와 민주의 처참한 폐허, 인권의 황량한 불모지로 화하였다. 남조선보수세당은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면서 미일상선과 야합하여 반공파괴대결투쟁을 전례없이 광범적으로 벌이도록 총개 발한데다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고조시켰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어난 합선침몰사건은 의세를 등에 업고 북남관계를 파괴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리명박세당의 책동을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보수세당의 이러한 망동은 6월항쟁의 나날 피흘리며 자주, 민주, 통일을 쟁취하며 반공투쟁을 일삼는 보수세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었다. 《선군》에서 패한 보수세당은 지금 패배당에 빠져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으며 진보세력은 《선군》승리에 고무되어 《내각총사퇴》와 함께 반공일대결경쟁의 철거, 《4대강정비사업》과 《세종시수정안》의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 《정부》투쟁행세를 더욱 울리우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이 6월인민항쟁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미 시작한 반 《정부》투쟁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히 벌려야 할 시기이다. 력사의 반동들은 결코 지질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파멸의 시각이 다가올수록 전명부지를 위해 더욱 발악적으로 날뛰는. 지금 남조선보수세당은 《민심》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느니 뉘니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인민들을 회유기만하는 한편 《4대강정비사업》과 《세종시수정안》을 비롯하여 이미 《선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반역정권을 계속 강행추진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박역도가 《선군》이 끝났으니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전념》 하라고 떠든것도 민심의 심판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역적세력의 오만성과 독재적본성을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이다. 한편 반역도당은 합선침몰사건을 조악한 저들의 반민족적외악에 대해 민족앞에 사과할 대신 더욱 분별없이 날뛰면서 대결전쟁소동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보수당국이 며칠전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한것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지방자치선거》결과를 놓고 절대로 만족할수 없으며 바로 강도높은 반 《정부》투쟁으로 보수세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외세가 없고 독재가 없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통일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민주세력들은 오늘도 투쟁행세를 늦추지 말고 다시한번 거세한 전진항쟁의 폭풍을 일으켜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구악한 범죄집단인 보수세당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6월항쟁용사들의 뜻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완강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북 은 회**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재미동포들 기념행사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 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재미동포들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6. 15 공동선언실천 해외추진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는 단세상인위원회의 심판을 받은 반역정권을 계속 강행추진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리명박역도가 《선군》이 끝났으니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전념》 하라고 떠든것도 민심의 심판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역적세력의 오만성과 독재적본성을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이다. 한편 반역도당은 합선침몰사건을 조악한 저들의 반민족적외악에 대해 민족앞에 사과할 대신 더욱 분별없이 날뛰면서 대결전쟁소동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보수당국이 며칠전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한것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지방자치선거》결과를 놓고 절대로 만족할수 없으며 바로 강도높은 반 《정부》투쟁으로 보수세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외세가 없고 독재가 없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통일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민주세력들은 오늘도 투쟁행세를 늦추지 말고 다시한번 거세한 전진항쟁의 폭풍을 일으켜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구악한 범죄집단인 보수세당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6월항쟁용사들의 뜻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완강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북 은 회**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세계의 빛이여진것이며 아직까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는것도 의세의 지배와 간섭때문이라고 간주한다.

이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조국의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 근본핵으로 되게 하고 북남관계가 이 리념의 기치밑에 통일로 지향되도록 노력도하시었다. 지난 기간 조국반도에서 일어난 력사적사건들은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조국통일의 불변의 기치이리라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에실트신문 《달 따씨야》 5월 25일부는 《조선통일의 리정표》라는 제목의 글에서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는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6. 15 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조선반도에서는 지난 시기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새로운 사태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이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조국의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 근본핵으로 되게 하고 북남관계가 이 리념의 기치밑에 통일로 지향되도록 노력도하시었다. 지난 기간 조국반도에서 일어난 력사적사건들은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조국통일의 불변의 기치이리라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에실트신문 《달 따씨야》 5월 25일부는 《조선통일의 리정표》라는 제목의 글에서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는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6. 15 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조선반도에서는 지난 시기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새로운 사태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외세의존정착을 비난

4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홈페이지에 리명박파괴외적세력의 의세의존정착을 비난하는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남조선미국합동조사연습중에 발생한 합선침몰사건이 북과 관련이 아니라는것은 이미 알려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명박세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목적달성을 위하여 미국과 짜고 사건을 북과 억지로 연계시키며 의도적으로 군사적간섭을 몰아왔다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리명박세당이 의세와 공조하여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의해 열려진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의 길을 가로막고 정쟁위기를 몰아오는데 앞장섰고나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늘어나는 전염병환자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이 기간 A형간염환자 1만 5 000명정수를 넘어섬으로써 10년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전염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결핵환자수는 모두 3만 5 800여명으로써 1993년이후 최고라고 한다.

사태를 어디로 몰고가는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대한 옹호한 기도의 발포이다. 역적세력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지난 3월 합선침몰사건이 터지자마자 다짜고짜 그것을 《북의 소행》으로 돌리고있었다. 합선침몰사건이 터지자마자 다짜고짜 그것을 《북의 소행》으로 돌리고있었다. 합선침몰사건이 터지자마자 다짜고짜 그것을 《북의 소행》으로 돌리고있었다.

합선침몰사건을 돌발하여 동족에게 《범죄자》의 딱지를 붙이고 침략적인 의세와 함께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남조선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유엔에 들고간것은 의세와 공조협력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들의 호전적기도가 남조선인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있다.

수난자의 비참한 운명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교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국의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신선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 클로드 헬러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의장 클로드 헬러대사께

자신이 드러나고있습니다. 《천안》호사건해결에서 판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피해당사자로서 《조사결과》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검열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3년 2월 포퓰의 거짓말 한마디로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공을 합법화해준으로써 미국의 강권과 전쟁의 도구를 전락시켰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에 명기된대로 유엔성원국들의 자주권존중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기본성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천안》호사건으로 인해 일축축박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신 선 호

주제 99 (2010)년 6월 8일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미제원수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미제날뛰고있는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철권 백로산협동농장 농장원들이 당당한 영웅전투를 벌이던 일제 해군기함 열매지였다.

《반포다!》, 《파괴다!》 이런 해군소리에 농장원들이 일순을 멈추고 다급히 달려왔다. 아직도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녹슨 판피와 폭탄파편들이 흙을 파제전 포전의 한곳에 드러나있었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사용했던것들이었다.

농장원들의 열골마다 침략자 미제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일기처럼 일어났다. 농장의 선동원인 권운순동무가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며 불같이 토로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어찌 이 땅에서 감행한 미제의 귀족같은 만행을 잊을수 있었습니까. 침략자 미제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안기는 심정으로 오늘의 영웅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갑시다!》

《미제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안기자!》

선동원의 호소에 화답하여 울리는 농장원들의 해군소리가 협동밭에 메아리쳐왔다.

어찌 분개연선시대에 자리잡은 여기 백로산협에서뿐이라. 우리 인민에게 해리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쳐 놓은 천주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불기

으로 휘발유를 쏟아넣은 후 인민들을 던져 불을 질렀다. 농들은 밭으로 뛰쳐나오는 인민들을 총창으로 찌르고 총탄으로 까서 다시 불속에 밀어넣은 후 방공호문을 막아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살인악당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생생하게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였으며 작두로 목을 잘라 죽이고 눈알을 찢고 머리에 불을 박아 죽이는 등 온갖 잔인한 살인방법을 거머쥐고 일감하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의 도시들을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떠벌리며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을 가하였으며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세균무기도 사용하였다.

미제의 세균 전맹행은 1952년에 들어 서면서 극도로 달하였는데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강연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90여개 시, 군들에 독멸제들과 세균이 들어 있는 폭탄들이 여러가지 물건들을 해아릴수 없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제가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 01mm라도 건드린다면 천만 군민은 선군으로 백배배진 서리발총창에 쌓이고양인 원한과 분노와 충음을 모아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조 혁**

이것은 날강도적인 그 무는 합선침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담이다. 전쟁에 돌며 하루같이 범부수준을 모르고 날뛰는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아야

